

한반도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연운열의
푸드특목

한 국가의 식량안보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세계식량안보지수(GFSI)가 있다. 이는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에 의해 매년 발표되며, 전 세계 113개국의 식량안보 상태를 평가한다.

GFSI가 정의한 식량안보는 1996년에 FAO가 채택한 것과 비슷하다. 즉 '사람들이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족시키는 충분하고 영양가 있는 식량에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언제나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한국의 2022년 GFSI 총점은 70.2점으로 113개 대상 국가 중 39위를 기록했다. 주요 4대 평가 항목에서 한국의 식량부담 능력은 76.8점(51위), 식량 공급 능력은 71.5점(11위), 품질과 안전은 71.5점(50위), 지속가능성과 적응력은 58.5점(34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수는 고소득 국가 평균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한국의 GFSI 점수가 큰 폭으로 낮게 산출된 이유

는 0점으로 평가된 항목이 많아서인 듯하다. 한국이 0점을 받은 세부 지표는 식량 부담 능력 중 농산물 수입 관세, 식량 공급 능력 중 작물 보관시설과 식량안보 전략 및 식량안보 전담 기구, 품질과 안전 중 국가 식품 지침과 국가 영양계획 및 전략, 지속가능성과 적응 중 부영양화, 기후 재정의 흐름, 환경-경제 회계 이행, 조기 경보 조치 및 스마트 농업, 수출 관리에 관한 약속 등 총 10개에 이른다.

한국은 식량안보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생산성 향상, 식량유통의 체계적인 개선, 글로벌협력 시스템구축 등을 통해 식량안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적 식량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전략적 검토가 요구되며, 지속 가능한 식량생산 시스템과 신속한 대처가 필수적이다.

농업기술의 진보등 과거에 비해 국내의 식량 생산량은 충분히 증가했다.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기술 개발은 중요하지만, 기후변화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요소에 대한 대처에는 한계가 있으며, 식량의 생산과 소비과정에서의 낭비와 손실을 줄이는 것도 필수적이다. 국제적인 식량안보 문제는 초고령화등 인구증가와 기후변화로 인

해 심각해지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협력이 필요하다.

식량안보는 개인에서 국가, 전 세계적인 차원까지 중요한 이슈이며, 이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 요소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정밀농업과 스마트팜과 같은 혁신적인 농업기술 도입과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방법이 필요하며, 이는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기후변화는 지구의 기온 상승과 기후 패턴 변화로 인해 식량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며,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초래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70여년 뒤인 21세기 말 한반도의 쌀 생산량은 30% 정도 줄어들고 쌀의 맛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새로운 품종 및 재배법의 개발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된 바 있다.

국제 식량 시장은 각국의 식량 생산량과 소비량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며, 이는 식량 안보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다. 식량 자급률이 높을수록 자립적인 식량 생산으로 불안정한 국제 상황에서도 안전해 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식량 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ESG 푸드테크 소사이어티 대표

약속 깬 GGM 노조파업... 투자철회 등 악영향 우려



기지수첩
양성운
(산업부)

국내 첫 노사 상생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를 적용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출범 5년만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019년 1월 현대차와 광주광역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한 완성차 사업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노·사·민·정 사회대타협 일자리'를 기지로 출범한 국내 첫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GGM은 '저임금 무파업' 등을 조건으로 내걸며 업계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GGM은 현대차가 개발한 경형 SUV 캐스퍼를 위탁 생산했으며 생산한 차량을 다시 현대차가 받아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

됐다. 덕분에 '전국 최초 노사 상생 일자리 기업' '무노조·무파업·저임금으로 성공 신화 써간다' '상생의 일타' 등 연일 GGM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다.

그러나 GGM은 설립 5년여 만에 위기에 봉착했다. 법인 설립 5년, 소형 SUV 캐스퍼 양산 3년 4개월 만에 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국내 첫 지역형 일자리가 공염불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파업은 GGM내 2개 노조가 통합해 출범한 뒤 지난해 5월 급속노조에 가입하면서 감지되고 있었다. 지난해 12월에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시키며 사측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결국 노조는 출범 당시 약속을 뒤로한 채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월 급여 7% 인상, 호봉제 도입, 상여금 300%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물가인상률을 넘어서는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GGM은 설립 당시 35만 대 생산까지 초임은 3500만원(44시간 근무 기준), 임금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합의했다. 현재 GGM의 누적 생산량은 지난해 기준 16만대에 불과하다.

GGM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탄생했지만 임금 인상과 파업으로 약속이 깨지면서 노사 상생 모델의 취지와 의미가 무색해졌다. GGM 설립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면 주주들은 투자를 철회할 수 있으며 향후 국내 기업들의 광주지역에 대한 추가 투자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노조는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만든 GGM이 당장 눈앞에 놓인 이익만을 쫓은 노조의 파업으로 오히려 기업을 떠나게 만들고 있다.

/ysw@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월 16일 (음 12월 17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한발 물러서서 보면 하늘도 높고 세상도 넓다. 48년생 실속은 별로 없는 속빈 강정. 60년생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 72년생 이익이 없고 가난하다고 손수한 것은 아니다. 84년생 좋은 말로 속삭이는 사람을 경계.
- 소** 37년생 내 것이 아닌 것에 포기할 줄도 알아야. 49년생 자신을 너무 사랑하면 사회생활이 힘들다. 61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말조심을. 73년생 이만하면 훌륭한 인생이다. 85년생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고 앞뒤를 살펴보자.
- 호랑이** 38년생 건강이 우선이니 운동을 하고 소식하라. 50년생 성실에서 멀어질수록 불편하고 허무함이 밀려온다. 62년생 감정을 절제하고 청산하라. 74년생 집 나간 말이 새 식구를 데려오니 행복이 크다. 86년생 성공은 아직 앞에 있다.
- 토끼** 39년생 자존감이 지나치면 주변을 힘들게 하니 마음을 겸손하게. 51년생 거울은 반드시 혼자 웃지 않는다. 63년생 행복한 이웃이 옆에 있어서 좋다. 75년생 체면치레로 지갑의 돈을 다 써버린다. 87년생 매사가 귀찮고 심드렁한 날.
- 염** 40년생 상대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착각. 52년생 모래 위에 세운 성은 바람 불면 날아간다. 64년생 자신을 응원하고 격려하라. 76년생 해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88년생 지금이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 뱀** 41년생 내가 먼저 믿어야 상대도 설득시킬 수 있는 것. 53년생 초심으로 돌아가서 시작. 65년생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시킬 운이 온다. 77년생 선배상사가 길을 터주니 일이 수월하다. 89년생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수도 있게 마련인데.
- 말** 42년생 참기 힘든 건 잊히는 것. 54년생 모시며 갈 때는 장화를 신어야 한다. 66년생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것은 아니다. 78년생 남새사기 서두르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90년생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라 했으니.
- 양** 43년생 그물을 쳐야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 55년생 여름이 가면 부채는 제 역할을 다한 것. 67년생 좋은 일을 행하니 행운이 찾아온다. 79년생 방법을 찾아 강물이 바다로 진출하는 날. 91년생 남비 요소를 찾아서 구멍을 메워야 한다.
- 원숭이** 44년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날 같아라. 56년생 양보로 동료와의 의견충돌을 막자. 68년생 양보다 질을 따지고 선택하라. 80년생 바늘 가는 데 실 가는 격으로 술술 풀림. 92년생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좌우하니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 닭** 45년생 배우자가 나의 고생을 알아주니 마음이 가볍다. 57년생 조금씩 일이 그려질 수 있으니. 69년생 부모님 증여를 손으로 풀어가야 할 듯. 81년생 시험 운이 백발백중(百發百中)이다. 93년생 기다리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것도.
- 개** 46년생 밭 없는 말이 천 리를 가니 남 얘기 말라. 58년생 명모삼천지교이니 이사해도 무방하다. 70년생 내가 자신의 미래라고 생각. 82년생 대기만성(大器晩成)이라 하듯이 세상 이치다. 94년생 매매는 호랑이따위의 거래가 순조롭게 풀린다.
- 돼지** 47년생 누구나 외로운 것. 59년생 영업실적이 상승. 71년생 고칠 수 없는 마음은 버리면 된다. 83년생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흐려 놓으니 그 미꾸라지 되지 않도록. 95년생 직장에서 미운 사람에게 딱 하나 더 주는 마음으로 양보를 해보라.

김상회의四季

소원 들어주는 정월 보름달



동양에서 달은 음양 중에서 음에 해당하며 여성으로 본다. 달은 여신의 상징이며 풍요의 상징으로 그래서 새해에 뜨는 첫 보름달을 소원을 이루어주는 영험한 표상으로 삼았다. 음력 설날이 지나고 첫 보름달이 뜨는 날이 정월 대보름날이다. 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로 올해는 양력으로 2월 12일이다. 예로부터 첫 보름달이 뜨면 달의 여신에게 새해에 원하는 것들을 이루게 해달라고 비는 행사를 치렀다. 달이 신화적으로 풍요의 힘을 가졌기 때문이다. 정월 대보름이 되면 필자가 주석하는 월광사에도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아무쪼록 어려운 일 생기지 않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함께 나눈다.

복을 부르는 대보름 풍습이 지금도 내려오는데 대표적인 게 오곡밥을 먹는 것이다. 오곡밥은 다섯 가지 잡곡으로 밥을 해서 먹는 것인데 흔히 쌀 보리 조 콩 기장을 말한다. 곡식 다섯 가지로 오곡밥을 먹을 때 햇빛에 말려두었던 무 호박 가지 버섯 고사리 등의 다섯 가지 나물을 같이 먹기도 한다. 이렇게 먹으면 여름에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한다. 밤 잣 호두 같은 단단한 견과류를 깨물어서 버리는 부럼개기도 있다. 이는 한해 내내 부스럼 같은 질병이 생기지 말라는 기원을 담고 있다. 대보름날의 가장 재미있고 신나는 행사는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 것이다. 도시에서는 올라갈 뒷동산이 없으니 저녁 식사 뒤 산책을 하면서 또는 늦은 퇴근길에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면 될 듯하다. 이런 풍습은 오곡밥은 맛집 순례, 부럼개기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요즘에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것들이다. 색다른 재미와 소원 성취를 바라는 마음이 합쳐지면 한해 동안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기고 어려운 일도 잘 풀린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곳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9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9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